

2016. 07. 04. ~ 07. 10. 주간

92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마늘 · 양파 · 대파 생산 및 가격 전망, 수입동향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삼계탕, 중국 첫 수출로 대륙 입맛 공략에 나서다
- 국산 배 미국 수출검역 요건 규제완화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청경채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
- 이열대채소 '오크라' 장기재배 양분관리 기술개발

정책동향

-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 해제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농업의 6차산업화 뒷받침
- 기후변화로 2040년대 쌀 생산성 13.6% 줄어든다

해외농업정보

- 일본서 수퍼푸드로 각광받는 대추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장마전선 영향으로 9~10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후반에는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6~20mm)보다 많겠음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등
- ▶ 예 보 : 사과 갈색무늬병, 점무늬낙엽병, 탄저병, 복숭아 세균구멍병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마늘 생산 및 가격전망, 수입동향
- ▶ 양파 생산 및 가격전망, 수출입동향
- ▶ 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수입동향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4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6

- ▶ 여수시, 돌산갓 신품종 '자랑이' 품종보호권 획득
- ▶ 광양시, 매실 가공식품 중국 땅 뽐낸다
- ▶ 보성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실시
- ▶ 해남군, 미니 밤호박 6차산업으로 발돋움
- ▶ 영암군, 축산농가에게 청보리 종자 공급을 위한 종자 매입
- ▶ 완도군,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 임대하세요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2

- ▶ 삼계탕, 중국 첫 수출로 대륙 입맛 공략에 나서다!
- ▶ 국산 배 미국 수출검역 요건 규제완화
- ▶ 박과류 종자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건변경
- ▶ 국산 다육식물 대만 수출 길 활짝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6

- ▶ 청경채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
- ▶ 녹차 재배 유형별 수익성
- ▶ 찻잎 퓨레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생면 제품개발
- ▶ 반사필름 멀칭을 활용한 골드키위 해금의 색도발현 증진방법
- ▶ 아열대채소 '오크라' 장기재배 양분관리 기술개발
- ▶ 변화하는 기후, 새로운 양파 재배기술 필요
- ▶ 양파 고질병 노균병 방제 해법 찾아!
- ▶ 고추·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 피해주의 당부
- ▶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활용기술세미나 개최
- ▶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 다양한 망고 품종, 국내 시설재배 가능성 열어

❁ 정책 동향 40

- ▶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여 국민 불편해소 및 농업의 6차산업화 뒷받침
- ▶ 기후변화로 2040년대 쌀 생산성 13.6% 줄어든다

❁ 해외 농업정보 43

- ▶ 일본서 수퍼푸드로 각광받는 대추
- ▶ 농촌진흥청, 우간다 축산기술지원 현지 반응 좋아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7. 04.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가격은 풍부한 세계 재고량에 의해 지난 금요일 전일 대비 3.5% 하락하여 마감하였음.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 가격은 풍부한 세계 재고량으로 인해 전일 대비 1.6% 하락하여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 당 \$11.68에서 약 5센트 하락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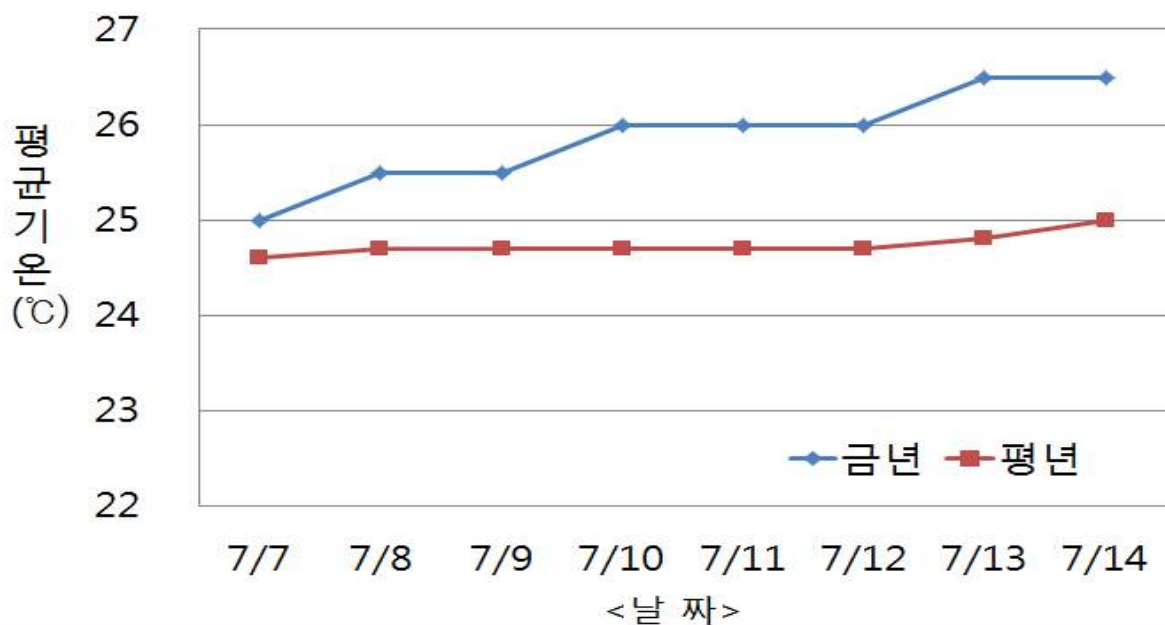
- ▶ 전남도,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 농식품 창업가 양성과정 수강생 아이디어 공모전 4명 수상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5.9	24.7	1.1	29.3	28.6	0.7	22.5	21.9	0.6	14.8
7. 07.(목)	25	24.6	0.4	28.0	28.8	-0.8	22.0	21.5	0.5	8.7
7. 08.(금)	25.5	24.7	0.8	29.0	28.8	0.2	22.0	21.7	0.3	8.8
7. 09.(토)	25.5	24.7	0.8	28.0	28.6	-0.6	23.0	21.8	1.2	13.7
7. 10.(일)	26	24.7	1.3	29.0	28.4	0.6	23.0	21.8	1.2	15.4
7. 11.(월)	26	24.7	1.3	30.0	28.4	1.6	22.0	21.9	0.1	17.0
7. 12.(화)	26	24.7	1.3	30.0	28.4	1.6	22.0	22	0.0	18.0
7. 13.(수)	26.5	24.8	1.7	30.0	28.5	1.5	23.0	22.1	0.9	19.9
7. 14.(목)	26.5	25	1.5	30.0	28.8	1.2	23.0	22.2	0.8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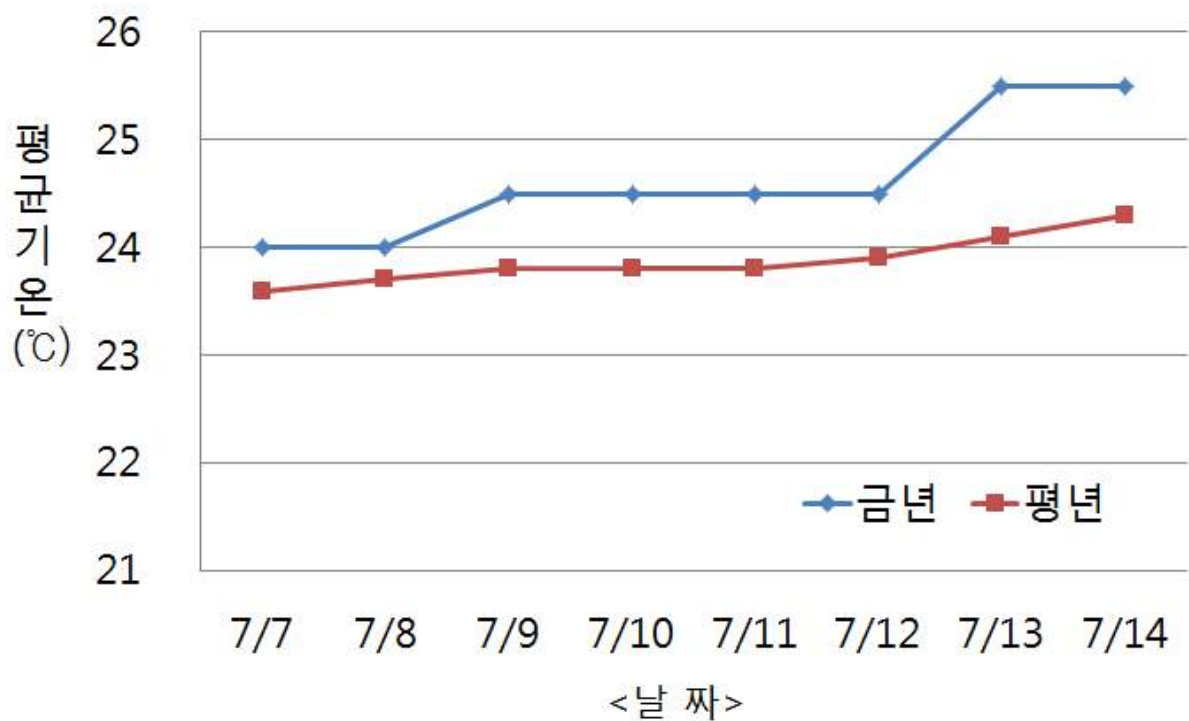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6	23.9	0.8	26.8	27.2	-0.4	22.5	21.6	1.0	11.0
7. 07.(목)	24	23.6	0.4	26.0	27.1	-1.1	22.0	21.0	1.0	6.5
7. 08.(금)	24	23.7	0.3	26.0	27.1	-1.1	22.0	21.3	0.7	6.6
7. 09.(토)	24.5	23.8	0.7	26.0	27.0	-1.0	23.0	21.5	1.5	10.8
7. 10.(일)	24.5	23.8	0.7	26.0	26.9	-0.9	23.0	21.5	1.5	11.0
7. 11.(월)	24.5	23.8	0.7	27.0	27.1	-0.1	22.0	21.6	0.4	11.9
7. 12.(화)	24.5	23.9	0.6	27.0	27.2	-0.2	22.0	21.7	0.3	13.3
7. 13.(수)	25.5	24.1	1.4	28.0	27.4	0.6	23.0	21.8	1.2	15.6
7. 14.(목)	25.5	24.3	1.2	28.0	27.7	0.3	23.0	22.0	1.0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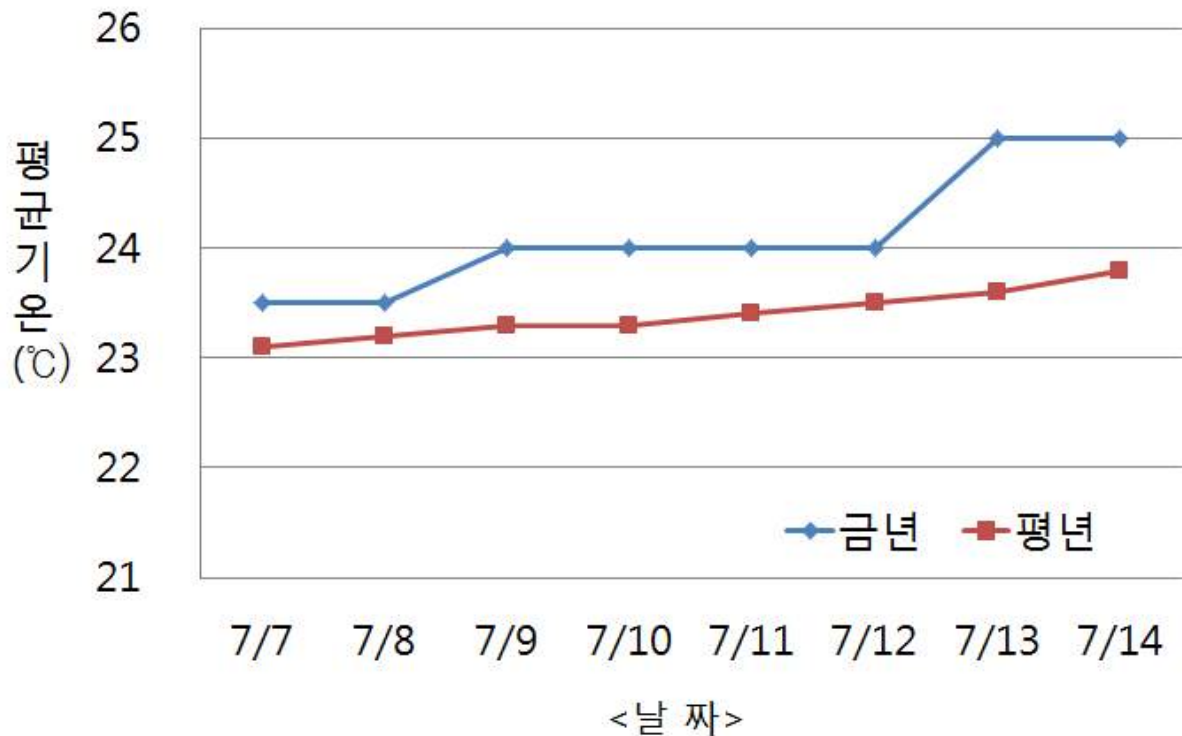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1	23.4	0.7	25.8	26.1	-0.4	22.5	21.5	1.0	12.2
7. 07.(목)	23.5	23.1	0.4	25.0	26.0	-1.0	22.0	21.0	1.0	9.1
7. 08.(금)	23.5	23.2	0.3	25.0	26.0	-1.0	22.0	21.2	0.8	10.2
7. 09.(토)	24	23.3	0.7	25.0	26.0	-1.0	23.0	21.3	1.7	12.9
7. 10.(일)	24	23.3	0.7	25.0	26.0	-1.0	23.0	21.4	1.6	12.0
7. 11.(월)	24	23.4	0.6	26.0	26.1	-0.1	22.0	21.5	0.5	12.4
7. 12.(화)	24	23.5	0.5	26.0	26.1	-0.1	22.0	21.6	0.4	13.1
7. 13.(수)	25	23.6	1.4	27.0	26.2	0.8	23.0	21.8	1.2	13.7
7. 14.(목)	25	23.8	1.2	27.0	26.5	0.5	23.0	21.9	1.1	13.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6. 7. 01. ~ 7. 15.)

농촌진흥청은 벼 먹노린재, 고추 탄저병, 수박 덩굴마름병, 과수의 미국선녀벌레, 각지벌레류, 응애류 등 돌발해충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하오니 장마철 농작물 관리를 잘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보 : 벼 먹노린재

- 최근 고온으로 충남·전남·경남의 산간 주변 논 재배 지역에 먹노린재가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 공동방제

□ 주의보 : 노지고추 탄저병

- 최근 탄저병 감염 위험이 높은 날이 많아 예방적으로 방제철저

□ 주의보 : 과수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진딧물류

- 발생이 빠르고 일부지역 피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찰, 방제필요

□ 주의보 : 검역병해충 사과·배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등

- 세균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봉지씹우기 작업, 전정 작업 시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발생 과원의 잔재물, 접수, 삼수 등 외부로 유출 금지

□ 예보 : 사과 갈색무늬병, 점무늬낙엽병, 탄저병, 복숭아 세균구멍병

- 병든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발생초기 적용약제로 방제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마늘 생산 및 가격전망, 수입동향

□ 생산전망 : 마늘 생산량 29~30만톤 내외 전망

-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마늘 전체 예상단수는 1,398kg/10a이고, 생산량은 29만톤으로 추정된다.
- 2016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6년	20,758	1.398~1.441	290.3~299.1
2015년	20,638	1,290	266.3
평 년	25,757	1,278	329.3
전년대비	0.6	8.4~11.7	9.0~12.3
평년대비	-19.4	9.4~12.7	-11.8~-9.2

□ 가격전망 : 7월 마늘 가격 지난달 대비 약세

- 7월 마늘 산지가격은 생산량이 증가한 난지형 대서종 출하 비중 증가로 6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난지형 마늘과 간마늘 7월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으나, 대서종 출하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입고의향 : 2016년산 입고량 지난해 대비 증가 전망

- 농업관측센터 저장업체 표본 조사결과,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대서종 위주로 지난해 대비 9% 증가한 약 93,300톤으로 조사되었다.
- 농업관측센터 저장량 모형 분석결과, 마늘 입고량은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97,900톤 내외로 추정된다.

○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 추정

(단위 : 톤, %)

구 분	2016	2015	전년대비
조사치	93,253	85,576	9.0
추정치	97,941	85,576	14.4

□ 수입동향 및 전망

- 신선마늘로 환산한 6월 25일까지의 마늘 수입량은 3,551톤으로 지난해 (3,024톤)보다 많았다.
- 6월 중국 마늘 도매가격은 kg당 8위안으로 전년(4위안), 평년(3.4위안) 보다 높았으나, 햇마늘 출하량 증가로 지난달보다 30% 하락하였다.
- 7월 마늘 수입량은 중국산지 마늘 가격이 높아 평년(4,156톤)보다 적은 3,000톤 내외로 전망된다.

양파 생산 및 가격전망, 수출입동향

□ 생산전망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지난해보다 증가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하나, 평년 보다는 7% 감소한 114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6년	16,906	6,763	1,143.4
2015년	16,002	6,047	967.6
평 년	19,198	6,396	1,227.8
전년대비	5.6	11.8	18.2
평년대비	-11.9	5.7	-6.9

-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결과,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지난달 대비 작황은 ‘좋음’ 25, ‘비슷’ 60, ‘나쁨’ 16%로 나타났다.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지난달 대비 작황상황

(단위 : %)

지 역	좋 음	비 슷	나쁨
충 청	23.5	55.9	20.6
전 북	15.4	76.9	7.7
전 남	26.0	50.7	23.3
경 북	32.2	57.1	10.7
경 남	22.0	74.0	4.0
전 체	24.8	59.7	15.5

□ 생산전망 : 2016년산 양파 생산량 지난해보다 증가 전망

- 2016년산 전체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21% 많으나, 평년보다는 3% 적은 132만톤으로 전망된다.

- 2016년산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6년	19,891	6,638	1,320.4
2015년	18,015	6,072	1,093.9
평 년	21,294	6,378	1,358.0
전년대비	10.4	9.3	20.7
평년대비	-6.6	4.1	-2.8

□ 가격전망 : 7월 도매가격 지난달 대비 보합세 전망

- 7월 평균 도매가격은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1,279원) 보다 낮으며, 지난달과 비슷한 600~800원/kg으로 전망된다.
- 저장출하기(8월~익년 3월) 가격은 입고가격을 고려한 저장업체의 도매시장 손익분기가격이 800~900원인 것을 감안할 경우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이다.

□ 입고의향 : 2016년산 양파 입고량 지난해보다 증가

- 표본 저장업체 조사결과,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9% 많으나, 평년보다는 7% 적은 61만톤으로 추정된다.
- 저장출하기 추정 도매가격을 감안한 2016년산 입고량은 지난해보다 15% 많으나, 평년보다는 3% 적은 64만톤으로 추정된다.

□ 수출입동향 : 6월 수출입량 지난달보다 증가

- 6월 1~25일까지 양파 수입량은 신선양파 2,639, 건조양파 75, 냉동양파 374톤이다. 이를 신선양파로 환산할 경우 4,092톤이다.
- 한편, 양파 수출은 최근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6월에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25일 신선양파 수출량은 1,974톤이며, 주 수출국은 대만과 일본이다.

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수입동향

□ 생산전망 : 3~6월 대파 정식면적 지난해 대비 증가

- 3~6월 정식면적(7월~내년 5월 출하)은 지난해 출하기 가격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 경기 노지대파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15, 강원 고랭지 대파는 5, 전남의 겨울(월동)대파는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7~9월 대파 정식의향면적(11월~내년 3월 출하)은 대파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 대파 추정 재배면적

(단위 : ha, %)

구 분	2016년	2015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경 기	1,485	1,297	1,698	14.5	-12.5
강 원	1,040	988	908	5.2	14.6
전 남	3,499	3,277	3,421	6.8	2.3

□ 가격전망 : 7월 도매가격은 지난해와 6월보다 낮을 전망

- 7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1,700원)와 6월(1,390원)보다 낮은 1,000~1,300원/kg으로 전망된다.
- 7월 가격은 경기의 시설 봄대파와 여름 노지대파 출하량이 증가하고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지난해와 지난달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동향

- 6월 1~25일까지 대파 수입량은 신선대파 131, 건조대파 83, 냉동대파 2,451톤이 수입되었다. 이를 신선대파로 환산한 총 수입량은 3,554톤으로 지난해(4,588톤)와 평년(4,364톤) 대비 각각 22, 19% 감소하였다.
- 7월 대파 수입량은 중국 대파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국내산 대파 가격하락으로 지난해(5,435톤) 대비 감소한 4,800톤 내외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7. 04. 기준/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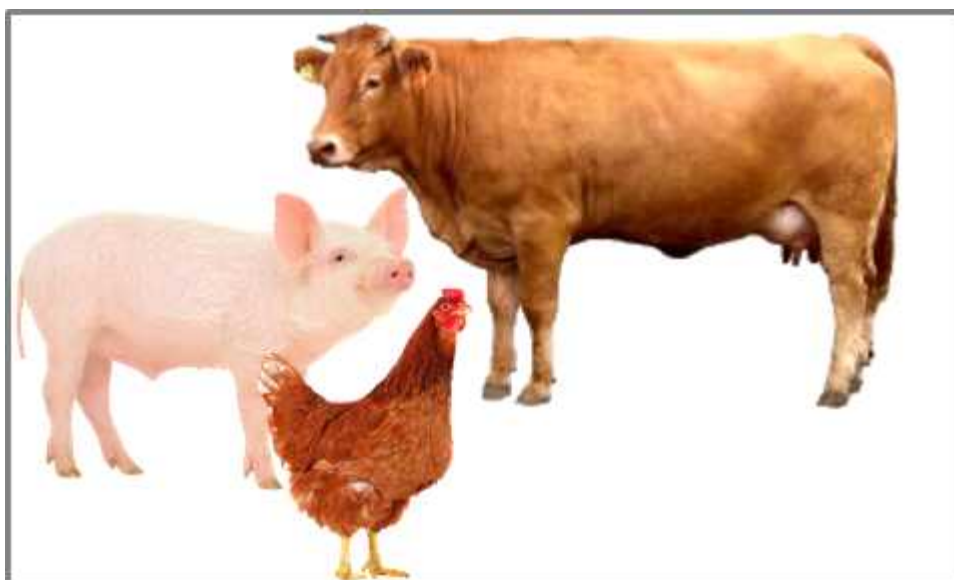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04)	1주일전 (06/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39,800	41,467	↓ 9.0	↓ 12.7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9,000	187,133	↑ 7.9	↓ 19.8
	고구마(밤)	10kg	26,400	30,200	29,700	37,750	37,917	↓ 30.1	↓ 30.4
	감자(수미)	20kg	19,600	21,000	30,800	26,450	23,317	↓ 25.9	↓ 15.9
채 소 류	배추(봄)	1kg	570	640	720	700	598	↓ 18.6	↓ 4.7
	양배추	10kg	6,700	6,900	7,650	6,900	5,520	↓ 2.9	↑ 21.4
	오이(다다기계통)	10kg	16,000	13,000	13,500	18,333	18,639	↓ 12.7	↓ 14.2
	애호박	8kg	11,600	12,600	11,350	12,800	11,187	↓ 9.4	↑ 3.7
	토마토	10kg	13,200	13,600	15,000	17,200	16,720	↓ 23.3	↓ 21.1
	당근	20kg	30,600	30,600	31,400	30,750	32,787	↓ 0.5	↓ 6.7
	건고추(화건)	60kg	710,000	710,000	710,000	820,000	834,000	↓ 13.4	↓ 14.9
	풋고추	10kg	49,400	35,200	35,700	33,050	34,527	↑ 49.5	↑ 43.1
	마늘(깐마늘)	20kg	165,000	174,000	175,000	123,000	106,240	↑ 34.1	↑ 55.3
	양파	20kg	14,000	13,800	14,850	21,900	15,587	↓ 36.1	↓ 10.2
	대파	1kg	1,740	1,740	2,090	2,235	1,526	↓ 22.1	↑ 14.0
	파프리카	5kg	15,000	13,400	19,800	14,750	17,907	↑ 1.7	↓ 16.2
	멜론	8kg	21,000	24,400	28,600	21,700	24,844	↓ 3.2	↓ 15.5
	방울토마토	5kg	11,400	12,200	13,700	11,650	11,790	↓ 2.1	↓ 3.3
	수박	1개	14,400	14,000	14,550	13,800	13,733	↑ 4.3	↑ 4.9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8,000	38,000	37,050	45,200	55,289	↓ 15.9	↓ 31.3
	배(신고)	15kg	46,000	46,000	44,600	39,600	62,707	↑ 16.2	↓ 26.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04)	1주일전 (06/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6,000	536,000	527,000	532,000	558,667	↑ 0.8	↓ 4.1
	느타리버섯	2kg	15,000	14,800	12,400	15,550	13,397	↓ 3.5	↑ 12.0
	새송이버섯	2kg	7,800	7,800	7,350	8,200	7,813	↓ 4.9	↓ 0.2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01	7,844	7,603	6,924	6,186	↑ 12.7	↑ 26.1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90	2,326	2,021	2,188	2,132	↑ 4.7	↑ 7.4
	닭고기	1kg	5,442	5,729	5,671	4,828	5,570	↑ 12.7	↓ 2.3
	계란(특란)	30개	5,410	5,324	5,397	5,696	5,616	↓ 5.0	↓ 3.7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5	2,385	↑ 0.2	↑ 6.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금주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가격정보는 도내 행사로 인해
다음 주 제공합니다.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돌산갓 신품종 ‘자랑이’ 품종보호권 획득

– 품종보호 등록으로 20년간 권리 독점 –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24일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돌산갓 ‘자랑이’의 품종보호권등록(품종보호 제6073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자랑이’가 국가품종보호 등록원부에 등록되면서 시는 향후 20년간 이 품종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또 종자와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돌산갓김치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자주색을 띠며 표면에 털이 많고 잎 모양이 재래갓과 유사한 물김치용 품종이다. 특 쏘는 맛이 강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특히 여름재배에 적합한 종이다.
- 시는 지역특산품인 돌산갓의 자체품종 보유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돌산갓 우리품종 연구에 착수했으며 자랑이를 비롯한 8종을 품종보호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 그동안 등록된 품종 중 돌산갓 재배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는 봄에 꽃이 늦게 피는 만추대성 ‘늦동이’와 가을 재배용으로 수확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짱돌이’가 있으며, 돌산갓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량이 많으면서 고온에 잘 견디는 여름재배용 품종과 재래갓과 비슷한 알싸한 맛을 지닌 품종, 품질이 고르고 종자증식에 유리한 하이브리드(F1) 품종 등의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해 농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여수시

■ 광양시, 매실 가공식품 중국 땅 뽐낸다

- 중국 샤먼시 샤샹그룹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 광양시가 오는 7.2.~7.5.까지 광양매실 가공식품 등 농·특산물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 시는 우호교류 도시인 샤먼시 샤샹 국제무역유한회사 바이어를 광양시로 초청해 매실 가공식품 시설견학, 제품의 소개 및 수출상담 등을 통해 광양시 농·특산물 중국 수출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7월 4일 광양 매화문화관에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에는 매실농축액·청·장아찌·된장·김치·막걸리·백운복분자주 등 광양 농·특산물을 소개한다.
- 특히, 이날 수출 상담회에는 담양한과·나주시 재래김·건미역·돌자반·유자꿀차·생강차 등 전남지역의 농·특산물도 함께 전시해 선보일 예정이다.
- 김병호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이번 샤먼시 샤샹그룹과의 교류가 복건성 5천만 중국인들은 물론 중국 전역에 매실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보성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실시

- 이번달 8일까지 생동감 있는 토론식 좌담회로 진행 -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관내 농업인들이 주로 재배하는 벼·고추·감자·배추 등 친환경 농작물 생산기술에 대해 중·후반기 중점관리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12개 읍·면, 91개 마을, 2,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민상담소장들이 마을회관, 우산각 등 농업인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생동감 있는 토론식 좌담회로 진행된다.
- 문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 영농교육은 현장에서 직접 재배상황 등을 보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당면 영농문제를 해결책을 찾아가며,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와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축산업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요롭고 활기찬 농업·농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출처 : 보성군

■ 해남군, 미니 밤호박 6차산업으로 발돋움

-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

- 해남군은 지난 6월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남 밤호박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 해남 밤호박 주식회사 회원 및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밤호박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체험시설 계획수립, 밤호박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밤호박 가공 상품의 시장 확대방향 등이 제시됐다.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미니 밤호박을 직접 수확·가공·체험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밤호박 체험농장을 조성하게 되며, 11월부터 소비자 초청 밤호박 가공 체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공 체험장을 운영, 생산과 가공, 체험이 결합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 해남 밤호박은 2015년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선정, 올해 3월 밤호박 가공, 체험장을 완공하고, 만주 등 밤호박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출처 : 해남군



■ 영암군, 축산농가에게 청보리 종자공급을 위한 종자매입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27일 서영암농협에서 축산농가에게는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경종농가에게는 겨울철 유희지 활용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한 2016년산 청보리 종자를 매입했다.
- 이번에 매입한 청보리 종자는 영양보리라는 품종으로 학산면 용산리와 금계리 일원에 25ha의 채종단지를 조성했었다. 여기서 나온 종자 2,191포는 전량 매입했다. 매입단가는 40kg 한포당 5만원으로 소요된 예산은 1억 1천만원이다. 매입된 종자는 전량 9월 중에 관내 조사료 경영체를 통해 청보리 재배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청보리 사료는 가소화영양소 함량(TDN)이 높고 청보리 사일리지를 거세한우에게 급여 시 일반 관행구 대비 일당 증체량은 8% 증가하였다.
- 또한,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도 일반 벼짚사용 50%에 비해 청보리 급여 시 82%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최고 품질의 한우고급육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정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영암군농업기술센터



■ 완도군,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 임대하세요

-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에게 싼값에 각종 농기계를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개소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완도읍 대야리에 토지 3,998㎡를 확보하고, 보관창고 660㎡, 교육장 168㎡ 등을 신축했다.
-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는 임대농업기계 24종 136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충원해 1일부터 사전 운영되고 있다.
- 임대농업기계는 땅속작물 수확기와 같은 트랙터 부착형 작업기와 소형엔진이 부착된 작업기로 임대료는 구입원가의 0.5%이다.
- 임대기간은 1~3일이며, 다른 농가의 신청이 없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완도군은 농민들이 언제든지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관리와 정비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대 전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농기계 임대는 농작업 안전보험 가입증명서를 가지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 박태열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일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임대농업기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완도군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삼계탕, 중국 첫 수출로 대륙 입맛 공략에 나서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육계협회, 중국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수출업체 5개사는 6월 29일(수), 전북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우리 삼계탕의 중국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삼계탕 중국 첫 수출은 중국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받은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초도물량 20톤이 군산항 등을 통해서 중국 상해·청도·광저우와 위해항 등으로 수출된다.
- 정부는 우리의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의 본격적인 중국 수출을 앞두고 검역위생 및 통관 등 중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인점검과 시판판촉 등 현지 시장파악을 위해 초도물량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첫 수출은 '06년 수입 허용요청 이후 10년 만에 우리 삼계탕에 대한 중국의 검역 위생 비관세 장벽 해소에 따른 것이다.
- 특히, 그간 더딘 검역 위생 협상절차는 '15. 9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어 '15. 10. 31.에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검역 위생조건”에 전격 합의하였다.
- 이후, 실질적인 수출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16. 5월에 한·중 정부 간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며, 수출업체 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표시(라벨), 제품생산 등 준비를 거쳐 6월 29일부터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게 되었다.

- 중국으로 첫 수출되는 삼계탕 20톤은 중국 당국의 포장표시(라벨) 심의와 통관절차가 완료되는 7월말에서 8월초 이후 중국 내 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내 대형마트와 온라인 몰 등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진행 중인 포장 표시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현지 통관항에서 라벨링 작업 후 유통되며, 중국 현지 바이어를 통해 상해·청도·광저우와 위해 지역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식자재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동시에 판매될 예정이다.
- 또한,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에는 한국산임을 알릴 수 있도록 “공동 CI(K-samgyetang)”를 부착하여 수출한다.
- 공동 CI는 삼계탕의 뚝배기 이미지와 태극무늬를 활용하여 한국산 삼계탕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산 삼계탕의 고급 이미지 구축과 중국산 삼계탕의 둔갑 판매 및 위조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자율적 민관 협의체인 “삼계탕 중국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 및 가격 기준을 마련하고, 현지 공동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중국시장 진입 및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삼계탕 중국 첫 수출은 우리 축산물의 첫 중국 수출시장 개척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한·중 정상 외교와 한·중 FTA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초도 물량 수출 이후 본격적인 중국 수출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역위생 지원은 물론,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추가협약,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국내 첫 시판되는 시기에 맞춰 스포츠 마케팅(중국 프로축구 리그 연계 대규모 시식 등), 권역별 대형유통매장 집중관측(200개소), 온라인관 홈쇼핑 입점 및 연계관측(T-mall, 동방 CJ 등), K-FOOD Fair '삼계탕' 특별 홍보관측(청두·우한) 등 공동홍보 및 관측을 지원하며, 현지 바이어 연계한 개별관측을 수출업체별로 지원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 중국내 삼계탕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 CCTV연계 삼계탕 다큐 제작방영(11월), 중국 CGV(영화관)와 연계한 광고 송출(8월~), 한류 드라마 및 중국대표 예능 프로그램 등에 PPL 추진 등 현지 주요 방송 매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관리 지도, 감독 등 안정적 수출지원을 위한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중국내 삼계탕에 대한 수요 및 선호 증가와 더불어 한류를 이끄는 대표 한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삼계탕이 이번 중국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산 배 미국 수출검역 요건 규제완화

- 우리나라 배는 미국으로 매년 9,000여톤이 수출되고 있으며 대만과 수출 양대 시장을 이루고 있다. 검역본부에서는 대미 배 수출확대를 위하여 선과장 내에서 타 국가 수출용 배와 동시선과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라벨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스티커를 포장박스에 붙일 수 있도록 수출요건을 개선하였다.
- 그리고, 새로운 봉지를 가까운 사무소에 한번만 등록하면 검역본부 전체가 승인된 봉지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화를 완료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였다.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박과류 종자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건변경

- 뉴질랜드로 호박·오이 등 박과류 종자를 수출하려면 수출검역 후 CGMMV 무감염을 증명하였으나, 최근 뉴질랜드는 KGMMV에 대해서도 무감염 증명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뉴질랜드로 박과류 종자를 수출하려면 두가지 바이러스 의무발생지역에서 생산 되었거나, 실험실 정밀검역 후 2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위생 증명서에 부기하면 수출할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산 다육식물 대만 수출 길 활짝

- 최근 대만식물검역 당국은 한국에서 생산된 에오니움(Aeonium spp.) 속 전체가 대만으로 수입이 가능해 졌다고 공고하였다. 검역본부는 대만과 '13년 에케베리아를 시작으로 다육식물의 수출협상을 지속해 오고 있다. '15년 에케베리아 속 전체의 수출이 타결되었고, 올해 추가로 아드로미슈스에 이어 에오니움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청경채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10a당 소득은 유기재배 3,429천원, 무농약재배 3,039천원으로 일반재배 2,759천원에 비해 각각 24.3, 10.1% 높았음

○ 청경채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2015) (기준 : 년 1기작, 원/10a)

인 증 유 형 별	일반재배	무농약재배	유기재배
생 산 량 (kg)	2,695(100)	2,396(89)	2,112(78)
판매가격(원/kg)	1,803(100)	2,247(124)	2,788(155)
조 수 입	4,859,085(100)	5,383,812(111)	5,888,256(121)
경 영 비	2,099,219(100)	2,344,098(112)	2,459,058(117)
소 득	2,759,866(100)	3,039,714(110)	3,429,198(124)
총 노동시간(시간)	135.0(100)	152.1(113)	163.1(121)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친환경 청경채 재배농가의 경영개선 및 경영진단 자료로 활용
- 경영성과 분석 결과이므로 경제성 분석 불필요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친환경재배(유기·무농약재배) 청경채 재배 희망농가 사전 경제성 분석 결과 제공으로 올바른 의사결정 및 친환경 정책자료로 사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박 신, 조동호, 손장환, 김덕현

■ 녹차 재배 유형별 수익성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10a당 조수입은 브랜드 육성 수출형 4,525천원, 제품 다양화형 8,803천원, 6차 산업형 5,500천원, 10a당 소득은 브랜드육성 수출형 3,224천원, 제품 다양화형 6,668천원, 6차 산업형 2,269천원이었음

○ 녹차 재배 유형별 수익성(2015)

(기준 : 년 1기작, 원/10a)

구 분		브랜드육성 수출형	제품 다양화형			6차 산업형		
		녹차	녹차	대용차	계	녹차	체험	계
조수입	수 량 (kg)	16	14	71	85	131	64명	
	단 가	275,522	305,600	113,280	581,122	35,696	12,614	
	금 액	4,524,510	4,278,400	8,042,880	8,802,910	4,693,067	807,296	5,500,363
비용	중 간 재 비	690,846	582,151	3,917,298	1,272,997	2,160,812	205,000	2,365,812
	경 영 비	1,300,920	834,465	5,785,075	2,135,385	3,008,480	223,333	3,231,813
	생 산 비	3,070,158	1,577,345	8,228,319	4,647,503	4,328,643	431,375	4,760,018
수익	부 가 가 치	3,833,663	3,696,249	4,125,582	7,529,912	2,532,255	602,296	3,134,551
	소 득	3,223,590	3,443,935	2,257,805	6,667,525	1,684,587	583,963	2,268,550
	순 수 익	1,454,352	2,701,055	-185,439	4,155,407	364,424	375,921	740,345
생산성	노동생산성	40,354	72,617	8,988	15,339	30,217	128,148	158,365
	토지생산성	3,833	3,696	4,125	7,821	2,532	6,022	8,554
노 동 시 간		95.0	50.9	459.0	509.9	83.8	4.7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차(茶)에 대한 경영·유통정보 제공 및 신규 진입농가에게 합리적인 영농 설계 정보제공으로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
- 경영성과 분석결과이므로 경제성 분석 불필요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대용차 도입과 가공체험사업을 도입하려는 차 농가에 경영정보 제공
- 지역 특성화 사업 및 작목개발 등 농업정책의 의사결정 기초 자료로 활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박 신, 조동호, 손장환, 김덕현

■ 찻잎 퓨레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생면 제품개발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퓨레 제조기술 개발로 찻잎 이용성 증대

- 퓨레 제조방법 : 차 생잎 → 증기로 찌м → 믹스(물 100% 첨가) → 포장 → 냉동

○ 차 생잎 퓨레 이용 가공 제품개발

- 가공 제품 : 녹차 생면, 녹차 호두과자 (퓨레 10% 첨가 양호) 봄찻잎

○ 찻잎 전처리별 퓨레 특성 (2015)

처 리		pH	고형분	수율 (%)	색 도		
					L	a	b
증 열	물100%	5.8	13.4	200	46.1	-10.8	19.2
	물150%	5.6	12.0	250	46.7	-10.2	25.9
	물200%	5.5	8.5	300	47.7	-10.0	18.7
열 수	물100%	5.4	12.4	200	46.4	-8.9	21.2
	물150%	5.5	9.1	250	47.3	-9.7	20.7
	물200%	5.4	8.0	300	47.5	-8.6	25.1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차 생잎 퓨레 연중 판매로 차 소비촉진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p>○ 증가되는 비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 생잎 : $600 \times 10,000\text{원} = 6,000,000\text{원}/10a$ - 전처리비용 : $600 \times 1,500\text{원} = 900,000\text{원}/10a$ - 계(A) : 6,900,000원 	<p>○ 증가되는 이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 생잎 퓨레 연중 소비 : $600\text{kg} \times 16,000\text{원} = 9,600,000\text{원}/10a$ - 계(B) : 9,600,000원
○ 추정 수익액(B-A) = 2,700,000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차 생잎 이용 푸레 제조과정

- 차 생잎 1kg → 증열(100℃, 1분) → 냉각(10℃ 냉수) → 믹서(차잎 1kg + 물 1L) → 푸레 → 냉동저장(-20℃)

※ 증열 : 증기에서 1분 동안 처리 후 냉각, 차잎믹스 : 두유기WP6

○ 차잎 푸레 첨가 생면 및 호두과자 제조방법 : 푸레 10% 첨가

- 생면 : 밀가루 100, 푸레 5~15, 감자전분 0.3, 전탄검 0.1, 소금 0.25, 물 30%
- 호두과자 : 호두과자 믹스 100, 푸레 5~15, 계란, 소금 0.25, 물 30%



【차잎 푸레 첨가 생면 및 호두과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김영옥, 최 정

■ 반사필름 멀칭을 활용한 골드키위 해금의 색도발현 증진방법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알루미늄 반사필름 멀칭으로 그늘이 지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수확기 색도발현이 지연되는 곳의 수확기를 7~10일 정도 앞당길 수 있음
- 알루미늄 반사필름 멀칭처리로 인해서 최초 수확일에 색도 불량과를 11% 줄이는 효과 있음

○ 반사필름 멀칭에 따른 광량변화 (2015)

(단위 : w/m²)

	8월	9월	10월
무처리	95.0 ± 31.7	77.8 ± 26.2	52.7 ± 20.3
투명비닐	99.3 ± 39.4	74.7 ± 36.8	46.5 ± 21.6
반사필름	108.6 ± 37.6	129.0 ± 46.8	89.5 ± 27.7

○ 반사필름 멀칭에 따른 해금 골드키위 수확기 품질 (2015)

	과중 (g)	종경 (mm)	횡경 (mm)	경도 (kg/5mm \varnothing)	당도 (°Bx)	건물중 (%)	산함량 (%)	색도 (°)
무처리	111.7±8.3	65±1.9	54.1±1.2	4.3±0.3	8.0±0.5	16.7±0.9	1.3	100.8±1.1
투명비닐	113.6±2.0	66.4±0.2	54.7±0.2	4.1±0.3	8.6±0.3	17.2±1.0	1.6	100.3±0.7
반사필름	112.5±9.1	65.6±1.3	54.6±1.5	4.4±0.3	7.9±0.4	16.7±0.6	1.3	100.0±1.1

□ 개발기술 기대효과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p>○ 증가되는 비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칭자재 : 70,000원 - 노력 및 포장비(1인 인건비) : 46,500원 - 계(A) : 116,500원 	<p>○ 증가되는 이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과 증수 : 1,540개 × 907원 = 1,396,780 ※ 24,500원(110g/27과) : 1개당 907원 (28주/10a, 500개/1주, 110g기준) - 제초효과(2인 인건비 절감) : 93,000 - 계(B) : 1,489,780원
○ 추정 수익액(B-A) = 1,373,280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생육 후반기 9월부터 수확기까지 알루미늄 반사필름을 수관 직하에 멀칭한 후 수확 전 H값이 103도 이하로 낮아졌을 때 수확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박문영, 조운섭, 조혜성

■ 아열대채소 ‘오크라’ 장기재배 양분관리 기술개발

- 첫 수확 후 20일 간격으로 덧거름을 시용하면 상품수량 23% 증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의 따뜻한 기후에 적응성이 높아 농가 신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열대채소 오크라의 장기재배 양분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에서 오크라 재배는 3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장기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양분관리 기술은 8~9월 생육 중·후 반기에 비료 성분 부족으로 식물체의 세력이 떨어져 수량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재배면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지만 해남·장흥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 이번에 전남농기원에서 개발한 장기재배 양분관리 기술은 생육 후기까지 뿌리와 엽의 기능을 왕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첫 수확 직후부터 20일 간격으로 요소 1.8kg을 물 3톤에 녹여 10a에 공급하면 상품수량이 23% 많아지고 비료 주는 횟수도 50%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는 2009년부터 연구개발을 통해 오크라의 우리지역의 기후에 알맞은 품종선발, 육묘방법, 본 밭에 심는 시기와 토양 멀칭자재 선발, 수확과실의 적정크기 설정 및 수확방법, 기능성 성분분석과 10여종의 요리법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해 오고 있다.

- 이러한 오크라는 우리나라의 고추와 거의 비슷하게 생겨 식물체의 각 마디마다 꽃이 핀 다음날부터 과실이 달리고 10~12cm 정도 자라면 수확하는데 수확기가 너무 빠르면 수량이 적고 너무 늦으면 딱딱하여 식감이 나빠 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며 이용성은 주로 생과용, 수프, 피클, 볶음요리 등의 식재료 원료로 동남아 외국인 전용식당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오크라 열매에는 ‘뮤신’이라는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위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준다’고 알려지고 있다.
- 한편 도내에서 생산된 오크라 대부분은 안산 등 수도권의 외국인 거주지역에 공급되거나 인터넷 판매를 통해 동남아 식당 등에 여주 등 다른 아열대채소와 함께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5~6월에 kg당 5,000~9,000원, 7~8월에는 3,000~4,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10a당 800~1,000만원 이상의 조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면적 틈새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팀장은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살려 오크라 조기 재배기술, 고부가가치 가공이용 기술을 개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변화하는 기후, 새로운 양파 재배기술 필요

- 이상기상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기상재해 발생양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상재해에 대응한 양파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년 양파 재배기간('15년 9월~'16년 5월)의 평균기온은 10.1℃로 지난해 대비 0.7℃, 평년대비 0.8℃ 높았고, 강수량은 784mm로 지난해 대비 237mm 증가하였다. 특히, 월동 전 생육기간인 '15년 11월부터 12월 평균기온이 지난해 대비 1.8~3.8℃나 높아 대묘를 조기에 정식하고 온난한 월동기를 지나 추대율 및 분구율이 높아져 생산성이 감소해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재배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을작형에서는 정식한 후 기온이 계속 낮아 지므로 정식시기가 늦어지면 뿌리의 발육이 충분하지 못해 월동 중 동해 피해를 받기 쉽다. 하지만 정식시기가 빠르면 월동 전 생육이 우수해 추대와 분구가 많아지기 쉬워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남기후에 따라 적정 정식시기의 구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남농기원에서는 전남지역의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 현재 시판매 중인 주요 품종들의 변화양상을 관찰하고, 수량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정식시기를 구명할 계획이다.
- 원예연구소 김성준 연구사는 “올해는 따뜻한 겨울로 추대와 분구의 비율이 높아져 양파 재배농가에 큰 부담이 되었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기상과 그에 따른 추대, 분구와 같은 재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양파 고질병 노균병 방제해법 찾아!

- 정식 후 부터 토양전염 차단방제 시작해야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양파 주산지에서 해마다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균병 방제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양파정식 직후에 계통이 다른 노균병 약제 3종을 10일 간격으로 3회, 월동 후 2월 하순부터 6회 교호로 살포하면 95% 방제가 가능하다. 이번 시험결과는 토양 소독제인 다조메입제 처리와 방제 효과가 대등하여 386천원의 생산비 절감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 양파 노균병에 감염되면 2월 하순부터 잎이 연두색으로 변하고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함께 전체 포기가 위축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고사한다. 특히 4월 상순까지 발생한 양파는 거의 수확이 어려우며 4월 중·하순까지 발생한 양파도 구비대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크기가 작아진다.
-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월동 후 방제만 실시하였다. 양파 노균병은 정식 직후 스프링클러 관수나 강우시 토양으로부터 전염되므로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월동 후에는 병든 식물체에서 포자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2월에 낮 기온이 15℃를 넘어가면 방제를 시작해야 한다. 양파 노균병 발생에 적합한 온도는 10℃ 정도이며, 잎 표면에 물기가 2시간 이상 묻어 있을때 발생이 잘된다. 따라서 비가 잦고 안개 끼는 날이 많으면 발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고추·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 피해 주의 당부

- 바이러스를 옮기는 총채벌레 방제 당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고추와 토마토 재배지에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발생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과 사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작물은 새순이 노랗게 변하면서 잎이 떨어지거나 시들어 죽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또 이병은 고추·토마토·국화 등 29종의 다양한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고추와 토마토에서 피해가 심하다고 하였다.
- 이 바이러스는 감염이 된 작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꽃노랑총채벌레를 방제해서 확산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꽃노랑총채벌레는 매우 작고, 번식력이 강해 발생초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땅에 떨어진 약충이 번데기가 되고 다시 성충이 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연속 7~10일 간격 최소 2회 이상 연속 살포해야만 방제를 제대로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고숙주 연구사에 따르면 비슷한 증상이 발견되면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으로 문의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확산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활용기술 세미나 개최』

- 시설재배 환경관리·스마트팜 활용기술 습득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6월 29일 스마트팜 설치농가, 신규설치 희망농가 및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팜 활용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도내 스마트팜 설치농가는 지난해까지 156농가 101ha에 보급되어 있으나 일부농가에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이해부족과 운용기술 미흡, 온실 및 기반시설의 낙후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이 더디고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설환경제어의 중요성, 시설장비 활용방법, 환경관리 방법 등과 더불어 스마트팜 확산 정책변화에 대한 정책 설명이 있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도재규 주무관의 스마트팜 성과 및 보급 가속화 정책설명과 전남대학교 이정현 교수의 ICT 융복합 시스템 복합 환경관리, 그린씨에스 배임성 대표의 스마트팜 환경설정 방법 및 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다.
- 시설원예 농가는 농가당 대부분 0.6ha 미만으로 규모가 작아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규모화 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스마트팜 도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시설원예 환경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희곤 연구사는 “세미나와 더불어 산·학·관·연이 함께하는 현장 컨설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농업 스마트팜을 활용한 도내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고를 낮추고 밭작물은 배수로 정비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7월 2~3일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비 (30~70mm, 많은곳 150mm 이상)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발표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작물 관리요령을 긴급히 발표하고, 사전·사후관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많은 비로 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고를 낮추어 주고, 물에 잠긴 벼는 신속하게 벼 잎의 끝만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빼 준다.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갈아주어 뿌리의 활력을 높여 준다.
- 논두렁과 하천제방 등을 점검 정비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 고추·수박·참깨 등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고추는 지주를 손질하여 쓰러짐을 막아준다.
- 밭작물이 침수되었을 때는 서둘러 물을 빼 주고, 고추 등 쓰러진 작물은 비가 갠 후 신속하게 세워주며 역병·탄저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 과수원은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손질해 주며, 새로 조성한 과수원의 토양 유실이 우려되는 곳에는 비닐, 부직포 등을 덮어준다. 또한 강한 바람에 의하여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유인하여 묶어주고, 저수고 밀식재배 과원은 철선 지주의 당김 상태와 포도 덩 등을 점검·보완한다.
-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변 배수구를 정비해 주고, 비닐하우스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고정해 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다양한 망고 품종, 국내 시설재배 가능성 열어

- 농촌진흥청, 수확시기 다르고 품질 우수한 망고 6품종 선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수확시기가 다르면서 맛과 색깔이 뛰어난 다양한 망고 품종들이 국내에서 시설재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생산하는 망고는 대부분 높은 가격의 선물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한 망고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고 수입량도 점차 늘고 있다.
- 우리나라 망고 재배면적은 2001년 7.1ha에서 2015년 25.5ha로 3.6배 증가했으며, 수입량은 2010년 1,351톤에서 2014년 10,599톤으로 7.8배 증가했다.
- 국내에서 재배되는 망고는 대부분 '어원(애플망고)' 품종으로 다양한 기호를 가진 소비자들이 만족하기에는 부족하며, 출하시기가 비슷해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이에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는 국내에서 다양한 망고를 재배하기 위해 18품종의 묘목을 2010년 미국에서 들여와 1년 동안 격리재배온실에서 식물검역을 받으며 시설하우스 재배 가능성을 검토했다.
- 약 3년 동안 묘목을 키운 후 2014년부터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내 시설하우스 환경적응성 포장에서 수확시기와 과실품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시설재배에 적합한 6품종(캐리어·초크아논·알폰소·도트·란세틸라·핀커링)을 선발했다.

- 수확시기가 가장 빠른 조생종은 '캐리어', '초크아논' 품종으로 6.8. ~ 13.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 이후 수확이 가능한 중생종으로는 '알폰소', '핀커링'이 있으며 수확시기는 6.15. ~ 23.까지이다.
- 수확시기가 가장 느린 만생품종은 '도트', '란세틸라'로 7.5. ~ 10.까지 수확한다.
- 당도는 '어원(애플망고)' 품종이 15°Bx 내외로 낮은 반면 6품종들은 20°Bx 내외로 품미가 우수했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다양한 망고 품종별 재배법을 추가 연구한 뒤, 각 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로 이들 망고 품종의 접수를 분양할 계획이다.
- 분양 받은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묘목 증식을 통해 농가에 보급한다.
- 앞으로 다양한 망고 품종의 보급이 확대되면 새로운 열대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해결하고, 외식업체에서는 열대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여 국민 불편해소 및 농업의 6차산업화 뒷받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5천ha(변경 28, 해제 57ha)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 이번 보완정비는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생산의 규모화, 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농지로써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 3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기준
 -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이하의 미경지 정리지역
 -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 지역
-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 농업보호구역 변경지역
- 기존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 +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시설
-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해제지역은 별도 도시 관리계획 변경없이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가능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해제지역은 시·군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가능
- 앞으로, 농식품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보전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기후변화로 2040년대 쌀 생산성 13.6% 줄어든다

- 농촌진흥청, 쌀 생산 변화 예측...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에 박차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쌀 생산성이 2040년대 13.6, 2060년대 22.2, 2090년대에는 40.1%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 자료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패널(IPCC) 5차 보고서와 기상청에서 제작한 12.5km 해상도의 RCP 8.5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 벼 재배지역에서 현재의 품종과 재배법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기후변화에 따른 연대별 전국 8도의 쌀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래에는 온도 증가로 벼 생산성이 1990년대(1991~2000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2040년대에는 충북의 감소율이 9.6로 가장 낮고, 충남이 17.1%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대에는 강원이 15.5로 가장 낮고, 충남이 26.3%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2090년대에는 강원도가 27.4를 보여 가장 낮았으며, 충남이 44%로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응해 고온적응 벼 품종과 이앙시기, 시비방법 등 재배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또한, 쌀 뿐만 아니라 보리·콩·감자 등 다른 식량작물의 온도상승에 따른 생산성 감소 연구와 더불어 작물별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생산성 감소 정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9. 해외 농업정보

◆ 일본서 수퍼푸드로 각광받는 대추

- 현지서 수퍼푸드 인기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대추 각광...농축액·잼·식초 등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오사카지사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부터 수퍼푸드와 관련된 정보 등이 매스컴이 자주 노출되면서 유통매장에 수퍼푸드 코너가 생기는 등 수퍼푸드가 각광받고 있다.
- 일본의 수퍼푸드·기능성식품 시장이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한국 수퍼푸드의 대일 수출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오사카지사 측은 설명하고, 이들은 대표적인 수출 가능품목으로 대추를 꼽았다.
- 현재 일본의 대추 수입량은 연간 132만 5,000톤(2015년 기준)에 달한다. 일본 내 생산량이 1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대추의 수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 오사카지사는 수출 유망형태로 건대추와 대추가공품(대추초·농축액), 생대추 등을 제시했다. 건대추는 여러 가지 곡물을 구워내며 달콤한 건조 과일을 섞은 시리얼 식재료로 건조시킨 슬라이스형 대추를 제안했다. 대추가공품의 경우 대추농축액은 대추 당도를 활용해 설탕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대추차는 건대추를 넣은 티백형태로 간편성에 어필한 일회용 제품이 현지 소비에 적합하다고 내다봤다. 생대추는 일본 내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과일의 간편성과 맛 취향에 적합한 편이라 대추의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촌진흥청, 우간다 축산기술지원 현지 반응 좋아

- 젖소사육 종합상담 및 인공수정 등 지원... 하반기 2차 파견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낙농수출지원 산학연 협력단'은 최근 실시한 우간다 기술지원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 협력단은 아프리카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한 낙농분야 유전자원 및 약품업체, 사료첨가제업체와 기자재 수출업체의 기술지원을 요청받고, 2주간(5. 23. ~ 6. 3.) 우간다에 개량, 번식, 사양 전문가 7명(국립축산과학원, 전북대학교,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약품회사 등)을 파견했다.
- 이들은 우간다 현지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우리나라 낙농 기술을 전하고 돌아왔다. 젖소 분만과 송아지 관리가 용이한 발정 동기화법을 소개하고 13농가 78마리에 동기화를 위한 호르몬 처리를 했고, 시술한 젖소는 기록과 이력관리를 위해 귀표를 달았다. 또한 젖소 33마리의 임신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에 문제가 되는 젖소를 별도로 조치했다.
- 또한, 현지 농가를 대상으로 번식과 개량종합 토론회를 열고 발정 동기화 방법 설명과 국내 수출약품에 대해 홍보했으며, 현지 농가들의 추가 기술지원 요청으로 올해 하반기 2차 축산기술지원 파견단을 구성해 개량, 번식, 사양, 초지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우간다 국립 동물유전자원센터인 나그릭(NAGRC)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앞으로 가축의 기록 관리와 현지 유전평가시스템 정착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7. 04.(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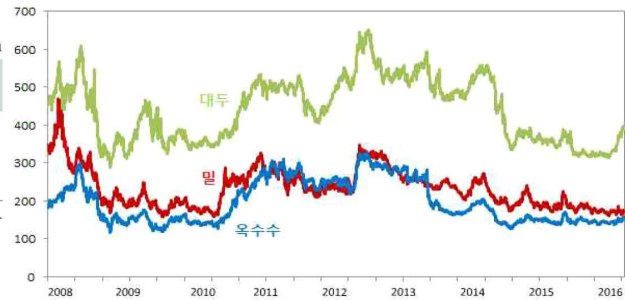
풍부한 세계 재고량과 온화한 날씨 전망에 따른 곡물 선물 가격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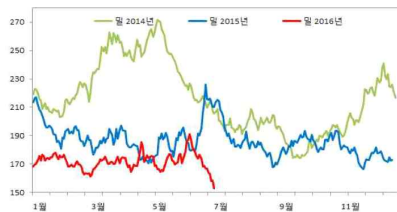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07.01)	전일대비	전월평균 ('16.6)	2015 평균
밀	152.92	▼3.5%	174	186
옥수수	138.97	▼1.6%	161	148
대두	429.38	▼0.5%	421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청산가격임.

단위 : US\$/ton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가격은 풍부한 세계 재고량에 의해 지난 금요일 전일 대비 3.5% 하락하여 마감하였음. 밀 선물 가격은 목요일 부셸 당 \$4.36에서 금요일 \$4.3로 더 하락하며, 6월 초에 비해 20% 하락함으로써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밀 주산지의 풍작과 풍부한 재고량으로 인한 결과임. USDA에 따르면 내년 5월말 전 세계 밀의 예상 재고율은 36%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적색연질밀 가격은 부셸 당 \$4.40에서 약 5센트 하락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 가격은 풍부한 세계 재고량으로 인해 전일 대비 1.6% 하락하여 마감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황중곡인 옥수수 계약은 부셸 당 \$3.70에서 0.3% 하락하였음. 긴 미국의 홀리데이주간에 앞서 온화한 기후가 예보됨. 목요일 매각은 옥수수 선물가격을 2개월간 최저치로 하락시킴.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3.57에서 약 1센트 하락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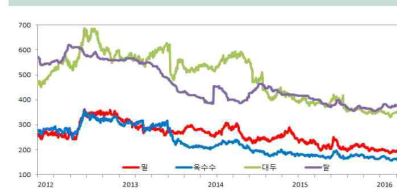


긴 미국 홀리데이 주간동안 온화한 날씨가 전망되면서 시장은 압력을 받았음. CME 그룹은 금요일 폐장이후 대두 선물거래의 이윤이 오늘 것이라고 말하였음. USDA에 따르면 개별 수출 업체들은 중국에 미국산 대두유 40,000톤을 판매하였음. 말레이시아 팜 오일 선물은 대두유 강세로 인해 상승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 당 \$11.68에서 약 5센트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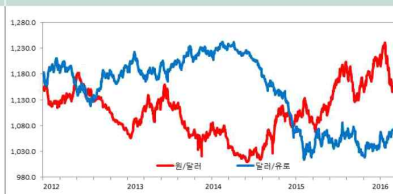
관련동향

- 중국으로부터의 건조한 수료로 인한 대두 수출 프리미엄 강세.
- 1일 국제유가는 브렉시트 충격 완화에 따른 주요국 증시 강세와 미 달러화 약세로 상승하였고,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가 상승폭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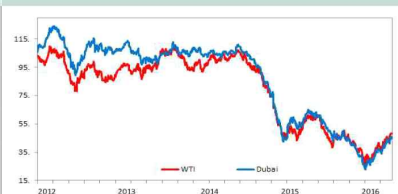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2	환율	원/달러	1,152.6
	옥수수	177		달러/유로	1.1105
	대두	468	국제유가	WTI	48.99
	쌀	426		Dubai	45.19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8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6.30(수출가격), '16.07.01(환율), '16.07.0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전남도,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전남도는 2016년 하반기부터 투자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 확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및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등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강화 등 5개 분야 12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내용이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분양률 50% 미만인 6개 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의 30%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하던 입지 보조금을 도내 7개 산단과 4개 농공단지, 항공·튜닝기업으로 확대하여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 농·수산 분야에서는 영세농가 지원을 위해 0.5ha 미만 농가가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도·시·군비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어업인 희망에 의해 자율 감척하던 것을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선령이 오래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정도가 큰 근해 어선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직권 감척한다.
- 복지·여성 분야에서는 맞벌이, 농어업인, 한부모 가정 등의 만 0~2세 종일반 아동만을 지원하던 것을 일일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반과 6시간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치료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도 지원한다.

- 환경 분야에서는 종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던 것을 폐기물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관리체제로 바뀌고,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안전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게 구호·생계비 등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법정 시설인 소규모 교량과 하천 등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위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게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 창업가 양성과정 수강생 아이디어 공모전 4명 수상

- 전남농업기술원, 창업가 양성과정 수강생 아이디어 공모전 4명 수상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 창업가 양성과정 수강생 4명이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수상한 농업인들의 창업아이디어는 “다이어트 식품개발, 소금·설탕 없는 웰빙잼, 가공 분산물 자원 기술개발, 과피 과일 드립커피”이다.
- 수상을 받은 4명의 대표는 창업가 양성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고 팔릴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다.
- 창업가 양성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덕현 박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돈버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e-비즈니스 리더양성 과정을 2008년에 개발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였다.

-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리더양성 과정을 직접 운영하여 매년 CEO 30명 이상을 양성해 오고 있다.
- 2015년에는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리더양성 과정을 보완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창업가 양성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은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주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하여 창업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지난 2016년 2월 23일부터 11일간 수강생 38명을 대상으로 창업가 양성과정을 실증한 결과, 수강생 17명이 특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및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 농업경영연구소 임경호 소장은 “농식품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주간

전남농업정보

92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